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08. 07. (목요일)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지속...영양실조 관련 사망 사례 증가

- WHO “7월에만 63명이 영양실조로 사망” -
- 트럼프, ‘가자 기아’ 우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격전지인 가자지구에서 아동 영양 상태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어린이들 (사진=Omar Al-Qattaa/AFP)

가자지구의 영양실조 문제는 지난 5월부터 급격히 악화되면서 6월에는 총 6,500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올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는 총 74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63건의 사례가 지난달에 발생했다. 사망자에는 5세 미만 아동 24명과 5세 이상 아동 1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59개월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GAM) 수치는 6월 이후 3배 증가했다. 7월 들어 2주간 5세 미만 아동 5,000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외래 치료를 받았으며, 그중 18%는 중증 급성 영양실조(SAM) 환자로 분류됐다. WHO는 “가자지구의 식량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영양가 있는 식량과 필수 의약품의 지속적 전달”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25일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이 비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인구의 3분의 1이 며칠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셋째주 WFP는 이스라엘에 138건의 구호물자 수송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76건, 약 55%만 승인돼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도 하에 설립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은 가자지구에 구호품 배급소를 설치했다. 해당 배급소는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위성사진과 현장 증언을 토대로 “배급소 접근 경로가 이스라엘군의 군사 작전 구역과 인접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배급소 접근을 시도한 주민들에게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언급하며 팔레스타인 지역에 식량 지원을 약속했다. 7월 28일 스코틀랜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경계 없는 식량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제3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안태현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맹민주, 김지민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39th_baekya@naver.com			
한림대학교 제3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